



사진 이선화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물길 우전 이야기

우전은 상해에서 두 시간 정도 서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작은 마을로 중국 서민들의 터전을 개발해 입소문이 난 알짜배기 관광지다. 쑤저우의 남쪽에 위치한 우전은 행정구역으로는 쑤저우가 속해 있는 장수성(江蘇省)이 아니라 저장성(浙江省)의 가장 북쪽에 속한다.

작은 다리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우아한 전통 가옥들이 가득해 마을 전체가 박물관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옛 모습 그대로의 길과 상점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우전의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허

물어질 것처럼 위태롭지만 빛바랜 모습 그대로 운치가 있다. 뛰니 뛰니 해도 우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물길이다. 양쪽으로 늘어선 주택들 사이에 흐르는 강물은 이곳 우전 사람들에게겐 삶의 일부다. 생활수준은 우리나라 60년대 정도로 수로의 물로 빨래도 하고 채소도 씻고 걸레도 빠는 모습이 마치 작은 갠지스강 같다.

십자 형태로 교차하는 하천으로 인해 우전은 동서남북 네 덩어리로 나뉜다. 이 네 구역을 '자(册 zha)'라고 하는데, '자'는 '산 shan'이라고도 발음하며 울타리를 뜻한다. 네 구역 중 관광객의 발길로 붐비는 곳은 '둥자'와 '시자'다. '난자'와 '베이자'는



우전으로 가는 길 저장성의 항저우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혹은 상하이에서 서남쪽으로 접근하면 우전에 닿을 수 있다. 쑤저우 쪽에서 간다면 장수성 남쪽 작은 도시 타이위안(桃淵)까지 가서 자가용 영업차를 타고 갈 수 있다. 가격은 1인당 20원 정도이다. 항저우에서는 우전까지 직접 가는 버스를 타거나 저장성 가장 북쪽의 도시인 통상(桐鄉)으로 가서 우전을 가는 버스를 타면 되며 상하이에서도 직접 가는 버스를 찾을 수 있다. 참고 www.wuzhen.com.cn

현지인의 거주 지역으로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중국 역사에서 고대 청추시기(淸秋時期) 때 우전은 중점적인 전략 기지였다. 자연히 경제도 매우 발달했으며 당조(唐朝) 때부터는 전문적인 관리 관원이 나서서 책임지고 관리했다고 알려졌다. 1950년 5월에 우전과 청진은 다시 합병되었다. 태호류역의 운하 수계에 속하는 우전 주위에는 중국항가호평원(杭嘉湖平原)의 숨결이 맴돌고 있다. 경향대운하는 우전 북쪽을 흘러 지난다. 역사를 들춰보면 다리 수량이 가장 많았을 때 150여 개에 달해 백 보 간격으로 다리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 적지 않은 다리들이 배와의 충돌로 망가진 상태다. 우전의 다리는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는데 구름다리, 정교한 돌담벽 다리들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다리 외관에는 반원, 궁형 등의 곡선들이 멋을 더하고 일부 돌다리 위에는 중국 고대의 특색을 가진 누각들이 있다. 우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오랜 역사가 그대로 묻어나는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된다.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우전의 거리와 전통가옥은 영화 <미션임파서블>에서도 볼 수 있다. ㉞